

##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③4

(구원사화)

■ 一沙權正孝

(한국인재개발원 회장·애국운동연합고문 울진)



사서는 다른 고서와 비교해도 매우 오래된 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서지학자이며 국립도서관에서 고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지연 선생도 확인했듯이 종이의 질과 글씨 그리고 제호를 표지에 바로 쓴 것 등으로 미루어 조선 중기의 것임이 틀림없었다. 틀린 글자 때문에 종이를 버릴 수 없어 그 위에 종이를 오려 붙여 바로잡은 데도 여러 곳 있어 저자의 소박한 일면을 읽을 수 있었다. …… 이 사서의 원전을 조사하면서 북에 노인의 깊은 사려에서 비롯된 민족사의 방향 지침을 다시 한번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후략)

(지난호에 이어) 한국인재개발원회장,애국운동연합고문 무투 행운은 편중되지 않고 재주는 독점법이 없기에 백성과 사물에게는 위난이 없을 수 없고 가문과 국가의 흥망은 반복됨이 무상하다 할 것이니, 지금 조선의 불행 또한 장래 행운의 실마리가 될 것인가? 내가 살펴보건대 인심은 분열되고 백성의 사기는 소침하니, 이에 붓을 던지고 길게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노다. 오호라 환인(桓因)이여! 오호라 환인(桓因)이여! 지금의 한 조카 진역(震域)과 한 즐기 유민(遺民)은 장차 어찌될 것인가! 장차 어찌될 것인가!

《구원사화》의 현존하는 판본을 크게 나누면, 본사에서 저본으로 이용한 ‘국립도서관 소장본’을 ‘뿌리社에서 영인·출판한 것(편의상 ‘영본’이라 한다)’과 ‘양주동 소장’의 필사본 계열 6종(편의상 ‘양필본’이라 한다)’ 등 두 부류가 있다. 먼저 ‘영본’은 조선 중기로 예상되는 시기에 실명서(고평석씨는 북에노인이 직접 쓴 일서라 하였다)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서, 영인시 첨부된 고평석님의 影印後記 내용을 일부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구원사화》는 조선조 숙종 2년(음료, 1675년)에 북에(北虜) 노인이 쓴 우리의 상고사이다. …… 필자는 우리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구원사화》에 관한 사료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이 원전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할 수 있었다. 이

다른 하나는 그 뿌리를 양주동남 소장의 필사본에 두는 도합 여섯 종류의 필사본들로서 각 대학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상시(李相時)님이 《구원사화》의 진서(眞書)임을 여러 자료를 들어 밝혀 놓은 고려원 발간 《단군실사에 관한 고증연구》이 책에는 ‘영본’에 대한 언급은 없다)에서 판본의 종류를 밝힌 부분을 일부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현존하는 《구원사화》가 A.D.1920년부터 A.D.1930년 사이에 단군교도들에 의하여 복사 또는 등사되고

민족주의 사학자들에 의하여 인용되어 여러 가지 역사 서적이 출판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A.D.1920년 경에도 민간에 그 사본이 전래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현존하는 《구원사화》의 필사본은 A.D.1940년(단기 4273년, 昭和 15년) 9월에 양주동(梁柱東)이 비장하고 있던 소장본을 손진태(孫晉泰)가 3본을 필사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광복 후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서울대학교 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각각 1부씩 기증하여 소장하고 있던 중에 고려대학교본은 A.D.1976년에 아세아 문화사에서 영인 발간한 사실이 있고, 서울대학교본은 그 후 없어졌다가 방중현(方鍾鉉)이 소장하고 있던 소장본을 다시 등사하여 동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으며, 그 밖에 언제 어디서 누가 필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권상로(權相老) 소장본을 필사하여 동국대학교에, 이선근(李瑄根) 소장본을 등사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각각 소장하고 있고, 또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이크로 필립본 하나를 역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등 도합 6종이 현존하고 있다.

그런데 이 6종의 필사본을 비교 대조하여 보면 동국대학교본에서는 ‘啓發’을 ‘啓蓬’로, 고려대학교본에는 ‘王儉’을 ‘王儉’ 등으로 잘못 필사한 흔적이 간혹 발견될 수 있을 뿐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먼저 영본과 양필본을 비교하여 보면 여러 발간 《단군실사에 관한 고증연구》이 책에는 ‘영본’에 대한 언급은 없다)에서 판본의 종류를 밝힌 부분을 일부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현존하는 《구원사화》가 A.D.1920년부터 A.D.1930년 사이에 단군교도들에 의하여 복사 또는 등사되고

(끝)

### 槐雲칼럼

## 광복절(光復節)과 건국절(建國節)

■ 槐雲 權海光(한국인재개발원 부회장)



령 치사에서도 오늘날은 대한민국 건설제1회와 제4회 해방일과 같이 경축하는 날이라고 언급하였다.

제 2회 광복절 행사는 6·25한국전쟁으로 대규모로 초라하게 마쳤으며, 51년 제 3회는 광복절 행사는 부산에서 거행했으나 모 신문기자가 ‘광복 6주년 기념식’으로 언론에 보도하여 이때부터 광복절이 해방일로 알려져, 올해도 언론매체들이 광복(정부수립, 완전독립) 67주년이 아니라 광복(해방) 70주년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의 역사적 건국일을 보면 지금부터 기원전 2333년 10월(음력) 상달에 단군왕검이 아사달(阿斯達: 지금평양)에 고조선을 세웠다.

그리고 기원전 57년 4월에 박혁거세(朴赫居世)가 세라벌(徐羅伐: 지금경주)에서 신라를 세웠고, 기원전 37년 주몽이(朱蒙)이 압록강 유역 환인(桓仁)지역에서 고구려를 세웠으며, 기원전 18년에 온조(溫祚)가 하남위례성(河南衛禮城: 지금 서울 풍납동)에 백제를 세웠다. 918년 왕건이 월연에 고려를 세우고 이듬해 개성으로 천도하여 935년 신라와 936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하였다.

그리고 1392년 7월 이성계가 개경(개성)에 조선을 건국하고 1394년 10월 수도를 한양(서울)으로 옮겼으며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으로 멸망하였다. 1945년 8월15일 해방이 되었으며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 ■ 역사기행

## 면암(勉庵)최익현(崔益鉉)선생의 행적지(行蹟地)를 찾아서

□ 향촌 권오창 (본원 지문위원)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국 대마도에서 순국하신 최익현선생의 행적지를 찾기로 하였다.

선생은 대한제국 말년에 특히 일제침략의 마수를 뺏치던 시기 구국의 일념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하여 의병활동 등으로 나라를 지킨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살펴봄은 오늘날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선생은 경기포천 출신으로 고종(高宗)때에 문신이였으며 나중에 전라남도 순창에서 임병찬과 의병을 일으키고 의병장으로서 분투하신 분이다. 1833년(순조 33년)에 출생하시어 1906년(광무10년)에 순국하시었다. 관직은 공조참판에서 1894년 공조판서까지 올랐다. 상고하여 보면



제1화

위, 진, 남, 북조 시대에 북위는 후에 남조를 무너트리는 수·당을 있게 한 토대를 만든 왕조이다. 북조는 사실 모두 이른바 흉노족, 선비족을 비롯한 북방종족들이 중원지역으로 내려와서 세운 왕조들이다. 남조는 원래 중원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운 왕조라면 북조는 중원에서는 북적(北狄)이라고 아만시하던 종족들이 세웠다.

북위(北魏)도 북조였으므로 북적이라고 불리던 선비족(鮮卑族) 가운데 한 지파인 탁발씨(拓拔氏)가 세운 왕조이다. 탁발씨의 북위는 무력으로 남쪽 중원지역으로 내려 왔으나, 중원지역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원래의 근거지에 머물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효문제 탁발굉은 북위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중원지역으로 본거지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선비족의 근거지인 대(代)에 있던 도읍을 낙양으로 옮겼다.

선비족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지역으로의 개척이었다. 비록 무력으로 낙양을 점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산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이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게 마련이다. 그러나 효문제의 입장에서는 낙양으로 천도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에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언제 정적이 나타나서 자기의 자리를 노릴지 모를 일이기도 하였다.

그리기 위하여서는 그동안 선비족이 지니고 있던 것을 개혁하여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했다. 그래서 효문제는 황제 스스로 친위적 개혁의 모범을 보여야 했다. 한번은 효문제가 지방 순시를 하는 중에 남쪽의 강소성에 있는 사수(泗水)에서부터 황하로 들어가서 험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낙양(洛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위험이 따르는 항로였다. 더구나 북방에 근거를 두었던 선비족은 물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신하들은 두려워하였다. 황제가 위험하게 배를 타면 안 된다고. 그러나 효문제의 생각은 달랐다. 북위 경음(京邑, 대)의 백성들이 가난한 이유는 도읍인 평성(平城, 산서성 대

## 개혁의 군주 북위 효문제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 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동시)에 조운(曹運)하는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낙양(洛陽)으로 천도하였으니 조운을 통한 유통이 가능하고, 그것을 통하여 물자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부강하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하여서는 물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했다.

그래서 그는 선비족들이 가진 이 두려움을 깨려고 하였다. 효문제는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탔다. 그리고 말하였다. “백성들이 황하의 물길이 험난하다고 꺼리고 있으니, 그러므로 짐이 이번의 행차는 백성들의 마음을 열기 위함이다.”백성들에게 이것이 살길이라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모험 정신은 그 후에 천도를 바라지 않는 귀족들의 반란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극복하고 북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개혁이란 쉽지 않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어려운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현재에 만족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들에게 위험은 극복할 만 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사람의 반대를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양방향의 노력과 능력이 없기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효문제는 앞장서서 이것을 성공시켰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수(隋)·당(唐)이 중원에서 통일 왕조를 건설할 수 있었다. 선비족으로 중원의 주인이 된 것이다. 아만족이라 불리던 북적의 북위 효문제는 개혁을 통하여 문명인이라 자칭한 한족을 지배할 수 있게 하였다. 알마나 멋진 일인가 개혁이라는 말은 요즈음도 많이 들리지만 개혁이 성공 못하는 이유는 개혁으로 맞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공시킬 능력도 없이 구호만 부르짖는 때문이 아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 권기환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권기환(權起煥, 31, 안동 36世 동정공파)는 동정공(휘 취)의 16세손이며 자주국방에 헌신하고 있다.

권 선임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입학하여 학부와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논문 “이중직격관을 이용한 정동형 히트파이프의 열 성능에 관한



연구”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가족으로는 부친 권오영(현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모친 최원남 여사가 있다. <권혁세 기자>

## 권오진 석보중학교 교장

지난 9월 1일 권오진씨(權五珍, 56, 임동)가 석보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

권씨는 경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안동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과와 同 교육대학원을 수료해 1988년 3월 물야중학교 교사로 발령되어 봉화고, 울릉중, 예천여중, 지보고, 봉양중, 의성여중 교사를 거쳐 축산중학교 교감, 안동교육지원청 장학사를 지냈으며 금년 9월 1일자로 석보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해 20여년간 교육발전에 크게 헌신했다.

“‘성실’, ‘열정’, ‘지혜’, ‘명철’로 살자”라는 생활신조와 “인재는 어느 날 하



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성장하며 육성되는 것이다”라는 교육관으로 참스승으로 한길을 걷고 있으며 안동판내 중학생 해외어학원수추진과 사랑의 하모니 안동고 합창단 조직 운영 등을 했으며 교육부장관, 교육감 표창 외 다수 수상,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 <권혁세 기자>

##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9월 23일 현재)

■ 총재단회비  
△권영성(부총재) 100만원  
△권계동(상임부총재) 100만원

소계 200만원

■ 중무위원회비  
△권기호(안동, 대종원) 20만원  
△권종달(포항, 부정공파) 20만원  
△권혁채(서울, 추밀공파) 20만원  
△권석원(양주, 추밀공파) 20만원  
△권동원(대전, 추밀공파) 20만원  
△권박원(대전, 추밀공파) 20만원  
△권호준(대전, 추밀공파) 20만원  
△권옥형(금사중공파회장) 20만원

소계 160만원

■ 대의원회비  
△권상현(광주, 추밀공파) 10만원  
△권기호(안동, 정조공파) 10만원  
△권인순(대전, 추밀공파) 10만원  
△권유수(서울, 대종원) 10만원  
△권정수(부산, 북야공파) 10만원  
△권태근(수원, 검교공파) 10만원  
△권장승(서울, 금사중공파) 10만원  
△권옥경(원주, 금사중공파) 10만원  
△권순인(원주, 금사중공파) 10만원

소계 100만원

합계 460만원



### 바로잡습니다

본지 (총보 제483호 9월1일) 3면 「謹弔 權五熙 會振 逝去」만사란에 신근(慎勤)을 신근(慎勤)으로 바로잡습니다.

으로는 프랑스 미국 러시아 청(淸) 일본 등과 국제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의제가 불밀듯이 밀어 뒤흔다. 국내적으로는 대원군의 10년 섭정으로 민비(閔妃)와의 정치적인 갈등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과도기를 맞이 하였다.

이 시기에 대원군의 주된 개혁정책의 공과는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를 타파하고 왕권을 회복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국정개혁을 단행하였다.

몇가지 예를 들면 인재를 등용하는데 있어서는 당파와 문벌을 배제하였고 서북인을 차별화 아니하고 탐관오리를 찾아내어 엄벌하였다.

(다음호에 계속)